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명곤

천안함 침몰의 진실은 무엇인가?

천안함의 연돌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고, 해저의 모래와 자갈에서 화약흔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침몰원인이 어뢰의 버블제트 폭발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설명되어야 할 의문점들이 너무도 많다.

먼저, 생존 장병 중에 버블제트로 인한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고, 물에 젖은 사람도 없고, 죽은 물고기떼와 같은 폭발 흔적이 없는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버블제트로 인한 폭발이라면 사고 때 관측된 인공지진파가 시차를 두고 두 번 나타나야 하는데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은 점도 설명되어야 한다.

또 폭발이 있었다면 화상이나 고막 파열, 장기 파열 같은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희생자들의 시신 상태나 생존자들 중 그런 상처가 한 명도 없는 점, 함미 바닥에 배가 긁힐 때 나타나는 스크래치의 흔적이 나타난 점, 스크류의 날이 안쪽으로 크게 휘어있는 점, 인양할 때 함미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샌 점도 설명되어야 한다.

사고 다음날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공개한 작전상황도에 보면 '최초 좌초 6.4'라고 표기돼 있는데, 해군 관계자는 그 글씨가 유족 가운데 한 명이 작전상황도를 뺏어가 임의로 써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가 왜 그런 중대한 자료에 멋대로 그런 글씨를 썼는지, 또 군은 왜 그런 글씨가 써진 지도를 공개했는지도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이 의문들은 군에서 몇 가지 기록만 공개하면 금방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TOD 영상 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 군에서는 9시 4분 무렵에서 9시 24분 무렵까지의 20분간만 영상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TOD 담당 병사의 근무태만이니 그를 불러서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교신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 군에서는 사고 당일 9시 15분에서 22분까지는 군 통신망을 통해서 교신한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또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기록도 공개해서 천안함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인양된 선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증거들이 공개되지 않은 채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듯하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 근처에서 터진 어뢰가 TNT보다 위력이 강한 고폭약인 'RDX'인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 공격설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이고, 대다수 언론들도 그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조사에 대한 모든 사항이 철저한 비밀에 싸여 있으니 국민들은 그저 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꼴이다. 불필요한 혼선을 막기 위해 일부는 보안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조사단의 구성이나 조사 과정이나 최소한의 진행 상황은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온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비극적인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하면서 그토록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자초하는 처사다. 보안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비밀에 싸여 있으니 온갖 억측과 가설이 난무하는 것 아닌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희생 장병들을 위한 영결식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세력을 끝까지 찾아내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접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통을 준 세력'을 북한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세력은 군과 정부라고 생각한다. 이해할 수 없는 보고 지연과 구조과정의 난맥상과 비밀에 싸인 조사과정까지 그 무엇 하나 고통을 주지 않는 부분이 없다. 명백하게 군의 위기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났고, 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군은 자신들의 문제를 반성하기보다 북한에 책임전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일 북한이 버블제트 어뢰를 발사해서 침몰한 것이라면 그 또한 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잠수정이 한미훈련중인데도 백령도 깊숙이 침투해서, 수중음향탐지기인 소나에도 걸리지 않은 채 빠르게 이동 중인 천안함을 버블제트 어뢰를 쏘아 명중시킨 후 몰래 북으로 귀환했다는 얘긴데 참으로 신출귀몰한 북의 침입에 대해 우리 해군은 왜 그토록 무기력했단 말인가? 막대한 국방비를 써서 최신예 무기들로 무장한 우리 해군이 그토록 무능하고 직무에 태만했다는 얘긴가?

만약 그렇다면 북한에 비해 그토록 전력이 뒤떨어진 군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살란 말인가? 이처럼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천안함 침몰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황호길

자기 치아 이식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증가돼 100살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 치아의 사용기간이 70년이었다면 앞으로는 30년을 더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으로 노후를 잘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과 더불어 치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의 형태가 작아야 미인이라고 인정받는 현대인은 사랑니가 아예 나지 않거나 뼛속에 파묻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아의 개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본인의 치아를 간직하려는 바람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치과계에서도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치료법이나 수술법이 발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치아의 신경치료 분야에서는 현미경을 이용한 장비들이 개발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신경치료가 실패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발치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신경치료가 실패한 경우 해당 치아의 뿌리 밑으로 수술적인 접근을 시도, 뿌리 끝을 자르고 신경관을 메워 주는 '치근단 절제술'이나 하는 수 없이 치아를 빼야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치아를 빼내어 입 밖에서 치료하고 다시 빼낸 자리에 치아를 심어주는 '치아 재식술' 특히, 묻혀있는 사랑니를 빼내어 치아가 없는 자리에 옮겨 심어주는 '치아이식술' 등의 기술이 개발돼 많은 성공을 가져오고 있다.

치근단 절제술은 신경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겨 치료가 불가능할 때 시도된다. 잇몸을 열고 뿌리 쪽으로 접근해 염증 부위를 제거하고 신경관을 메워 주면 9개월 후 염증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된다. 이 수술은 충분한 경험과 임상경력이 풍부한 보존과의 숙련된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좋다.

치아재식술은 신경관이 막히거나 석회화되어 도저히 일반적인 신경치료로는 통증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나 이미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치아 속에 기둥을 세워 보철치료를 했으나 치아의 뿌리 밑에 염증이 재발된 경우 등에 사용된다. 즉 신경치료나 치근단수술로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치아를 입 밖으로 빼내어 현미경 밑에서 치료함과 동시에 치아가 발치된 웅덩이의 염증을 제거한 뒤, 다시 빼낸 자리에 심어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신경치료가 실패한 경우 치아를 빼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신장이식처럼 치아를 옮겨주는 치아이식술도 있다. 상하 좌우측에 사랑니가 있는 경우, 심한 충치로 인해 도저히 보존이 불가능한 치아가 있다면 발치하고 그 자리에 사랑니를 대신 옮겨 심은 것으로 현재 매우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다.

위와 같이 하는 수 없이 치아를 빼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치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치아를 하나라도 지키려는 노력은 고령화 시대에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조선대 치과병원 보존과 교수(신경치료분야)〉

기고

이진영

늙음을 거부하는 몸짓

지난 4월 8일자 광주일보 무등고에 실린 '노인에 대한 편견'을 잘 읽었다.

우리 노인 세대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준 유익한 기사를 읽고 그 누군가가 노인을 대표해서 반응(화답)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고하게 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그 내용인즉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와 극복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생에 대한 감사와 긍정의 마음가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편견은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 글의 내용에 필자를 포함한 노인세대들은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금과옥조와 같이 일상활동 지침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필자가 보고 체험했던 것을 부연하고자 한다.

인생은 무상하다고 했지만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지 어느새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려앉아 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 남자나 여자나 검은색깔로 염색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까지는 늙음을 거부하기 위한 애교로 봐 줄 수가 있다.

하지만, 늙음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주름제거 수술이나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심하다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노인네들의 성형수술은 일시적인 경우는 몰라도 대개가 흉한 결과를 가져온다.

늙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인간의 참 모습이다. 칼을 대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움의 균형을 깨는 결과를 가져오며 자연에 역행하는 일이다.

내가 서울에 근무하던 시절 내가 살았던 집주인 할머니가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할머니는 20세 때 유명한 잡지의 표지 모델이었던 미인이다. 나도 그 잡지의 표지를 보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돼 그 젊은 날의 추억이 그리워서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데 아름다움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다른 사람 같이 되어버렸다.

성형수술이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흉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옛 어른들의 말씀을 빌리면 '곱게 늙자'라는 말이 있다. 가을에 푸른 나뭇잎이 단풍으로 물들어 가듯이, 들꽃이 시들어 가듯이 그렇게 곱게 늙어가야 한다. 세월을 보내면서 만들어진 흔적들이 이곳저곳에 묻어있는 그대로 본향으로 가자! 아무리 늙음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흐르는 강물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한낱 안타까운 몸짓에 불과하다. 늙음을 자연의 선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무등고의 이야기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노년은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주)나평건설 부회장〉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과외 받는 세태 '씁쓸'

올 초 새 학기를 맞아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반장 선거와 전체 회장 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반장과 전체 회장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당선을 시켜주기 위해 사교육 전문업체가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반장과 전체회장 선거를 돕는 '반장학원'인 셈이다.

이 '반장 선거 대비반'을 개설하는 스피치 학원이 늘고 있으며, 학생회장 선거를 돕는 맞춤형 개인과외도 등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든 생각은 스피치 학원을 통해 말 잘하고 인기 얻고 잘 보여서 반장이 된다면, 그건 자칫 돈 많은 아이가 반장 부반장에 전체회장까지 싹쓸이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 아닌가. 그것도 결국 뒤집어 보면 성인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기분이 씁쓸하다. 순수해야 할 초등학교 반장선거가 이런 식으로 돈 앞에 무릎 꿇고 변질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가슴이 답답해진다.

▲최계숙·광주시 남구 원산동

약, 물 이외 음료와 복용할땐 부작용 주의

약 먹을 때 물이 없으면 쥬스나 우유, 요구르트 같은 걸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먹을 때는 약의 종류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걸 알았으면 한다.

비타민C 영양제나 철분제는 과일쥬스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증가시켜 도움이 되지만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 해가 될 수 있다. 고혈압 치료제 중 일부는 자몽 쥬스, 오렌지 쥬스 등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지기도 하고, 칼륨 배출을 줄여주는 고혈압약과 칼륨이 많이 든 과일쥬스나 바나나 등을 함께 먹는 것도 잘 맞지 않는다.

골다공증이나 빈혈 치료제를 복용할 땐 우유와 함께 먹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 우유의 칼슘 성분은 골다공증 치료제와 빈혈 치료제인 철분제의 흡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일 수 있지만 검증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금동

사설

지역교육 성패 유권자의 참여에 달렸다

6·2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 등에 가려 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다. 교육감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40% 이상이 부동층이니 "당선 여부는 90%가 운"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자칫 교육계만의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커 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 10일~11일 열린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광주시교육감 토론회는 무상급식과 전교조 명단공개·교원평가 등을 놓고 대상과 방법·시행시기 등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각차는 곧 차별화된 공약을 의미하는 만큼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감 토론회 역시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원배정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육비리의 근절을 위한 대책과 교육감의 권한 축소 등이 쟁점이 됐다. 후보들은 교육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나름의 대안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상급식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전교조 명단 공개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선 대다수가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는 입장을 견지해 소신이나 정체성 결여 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를 보더라도 교육감 선거는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과 장래 교육 수요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이다. 따라서 토론회나 언론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의 책무가 아닐 수 없다. 낮은 관심 등으로 '묻지마' 선거가 된다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교육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의 한 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호남~제주 해저고속철 국가계획 반영돼야

교통연구원 등 3개 기관이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이들 기관들은 내년 8월까지 호남~제주 고속철도 이용 수요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비롯해 지형·지질조사 및 사업기간 등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지난 2007년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지사가 국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면위로 떠 올랐던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투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사업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26분이 소요되고 2026년 기준 매년 1500만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포화상태에 이른 김포~제주 항공노선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호남과 제주를 연계하는 관광벨트 형성을 통한 새로운 레저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심도있는 타당성 조사가 요구된다. 최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분석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해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과제다. 제주도민들 일부는 고속철도로 육지와 연결될 경우 섬으로서 고유한 매력이 상실되는 만큼 새로운 공항 건설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주시장 경선에 나섰던 일부 후보 역시 관광인프라가 뛰어난 제주로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게 돼 열악한 지역 관광산업계가 고사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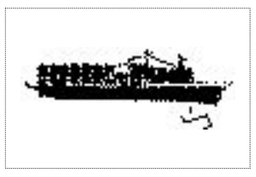
그러나 해저고속철 건설은 경부축에 비해 낙후된 호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와 호남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無等鼓

컨테이너

유조선에서 개조된 화물선 '아이디얼 X호'는 1956년 4월 26일 아침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항을 떠나 휴스턴으로 향한다. 화물은 58개의 컨테이너. 미국의 경제학자 마크 레빈슨이 "세계를 더욱 작게, 세계경제를 더욱 크게 하였다"고 극찬하는 컨테이너 운송시스템의 시작이었다.

이전까지 해운은 사람의 손길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었다. 상선이 도착하면 배에서 하나씩 짐을 내린 후 일일이 장부에 적고, 창고로 옮겨야 했다. 과일 같은 것을 내릴 때면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40kg이나 되는 박스를 조심스럽게 짊어지고 널판을 내려가곤 했다. 컨테이너는 이런 번거로움을 추방했다. 비용과 인력도 크게 절약하게 됐다.



컨테이너는 제조업에도 공헌했다. 먼 곳까지 대량으로 제품을 나를 수 있게 되자 공장은 대도시 밖으로 옮겨갔다. 대신 도로가 뚫렸다.

우리나라만큼 이 멋대가리 없이 생긴 직육면체 상자의 덕을 본 나라도 없다. 1969년 처음 들여온 이후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기까지 수많은 컨테이너가 '메이드인 코리아'를 5대양 6대주로 날랐다.

이런 놀라운 힘의 원천은 표준화다. 표준 규격 '길이 6m, 폭 2.4m, 높이 2.6m, 부피 30㎥'인 이 상자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곡물에서부터 TV, 냉장고, 휴대전화까지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간다.

예술작품 전시는 물론 공연까지 가능한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까지 거듭났다. 12일 문을 연 금남로 분수대 앞 '쿤스트할레'가 대표적이다. 컨테이너 29개를 쌓아 만든 이 건물은 '아시아 공연 마루'라는 우리 이름으로 광주시민 품에 안겼다.

2년 전 촛불 시위 때 광화문 광장을 가로막은 컨테이너와 대비되는 풍경이다. 당시엔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 '명박산성'으로 불린 이들 컨테이너가 국민과 정부를 갈라놓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72 정치부 2200-634 경제부 2200-641 사회1부 2200-612 〈FAX 222-4267〉
사회2부 2200-692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육팀 2200-663 사진부 2200-691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